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미은



지난 20일 광주 사직공원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붉은 물이 탁하게 시작하 나무들과 발밑에 바스락대는 낙엽이 어우러진 모습이 만들어진 풍경이기도 했지만 거기, 있는 듯 없는 듯 자리 한 사람들과 음악과 그림 때문이기도 했다.

50대 중년 남성은 난생 처음 화가 앞에 앉아 본 듯했다. 어색한 웃음과 쑥스러운 미소를 보이며, 그는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림을 받아들이는 “많이 닮았다”며 작가에게 감사의 말을 건넸다.

색소폰과 피아노 연주가 귓가에 울리고 현악 4중주단이 들려주는 파벨렐의 ‘캐논’은 발길을 붙잡았다. 좁은 샛길을 따라 걷다 보니 시인 박남준과 가수 한보리가 독자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팔각정 앞에서는 꼬마들이 눈을 반짝이며 동화구연을 듣는 모습도 보였다.

아쉬웠던 ‘굿모닝 양림’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굿모닝 양림’은 작은 규모지만 양림동과 사직공원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린 축제였다.

이곳 저곳을 거닐며, 아쉬웠던 점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함을 나눴으면 하는 거였다. 신실 축제인데다,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다보니 참가하는 이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지난 9월과 10월 전곡은 축제의 흥수였다. 광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회사가

충장축제, 이대로 갈 건가요?

금남로 한복판에 있다보니 충장축제에 9년째 ‘강제 참여’하고 있다. 하루 종일 음악소리(소음으로 여겨지는데)에 시달리고, 퇴근 길엔 사람에 밀려 멀미가 날 듯했다.

행사 주최측인 광주 동구청은 충장축제가 ‘아시아 최대의 거리 축제’라고 자랑한다. 한 도시의 심장을 관통하는 메인도로를 무려 6일 동안이나 막아놓고 벌어지는 축제니 그럴만도 하겠다.

모든 축제나 문화 행사 진행팀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어떻게 사람을 모을까’하는 점이다. 여수엑스포는 관광객 유치

에 애를 먹었고, 비엔날레도 고전 중이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행사들은 관객 모으기에 사활을 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사 장소를 정하는 데 지혜를 모으고, 홍보에 기를 쓴다.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보면 충장축제는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 광주에서 가장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6일 밤낮으로 판을 벌인다.

하지만 콘텐츠를 들여다 보면 너무 안타깝다. 해마다 똑같은 프로그램의 반복이다. 어찌하면 그렇게도 한결 같은지 모르

겠다. 도청 앞에 세워진 메인 무대에서는 각 방송사들이 진행하는 콘서트가 열린다. 올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들은 아이돌 가수들이, 하루는 7080 가수들이, 하루는 트로트 가수들이 공연을 가졌다. 수년째 출연가수의 면면만 조금씩 바뀔 뿐 ‘그 밤에 그 나물’이다.

충장로 1가부터 5가까지 들서선 주말들은 언제부터인가 축제의 주빈이 됐다. “길거리 주점에서 술 먹기 위해 축제에 온다”는 사람들도 많다. 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먹을거리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면 문제가 있다.

11억 원의 예산을 쓰는 충장축제는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통구청 자료에 따르면 첫해인 2004년 방문객 100만 명, 경제 효과 7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방문객 350만 명에 경제효과는 35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400만명이 넘게 다녀간 걸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9년 사이 방문객이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10년 맞아 ‘새 판’ 짜야

이 정도면 광주 충장축제는 모든 축제의 최대 고민거리인 ‘모객(募客)’의 부담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향’에 맞는 콘텐츠를 구축하는 새로운 도전 정신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한다. 가수를 불러다 무대에 세우고, 교복 입혀 거리 퍼레이드 하는 ‘안전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마침 충장축제가 내년이면 10년을 맞는다. 설마, 수백만의 방문객, 수백억 원의 경제효과(솔직히 이런 수치 100% 믿기 어렵다) 같은 숫자에 취해 내년에도 지금 같은 컨셉 그대로 행사를 진행하지는 않을 거라 믿는다.

현재와 같은 콘텐츠로 진행되는 충장축제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대표 축제가 된다는 게 못내 쓸쓸한 일일 것 같다.

〈문화부장〉 mekim@kwangju.co.kr

은편칼럼



옥영석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40대 전후가 중년이라니 나이 50에 가까워졌다면 인정하고 싶진 않아도 중년 중의 중년이다. 주말마다 운동을 즐기고 나른 스포츠맨을 자부해 온 터라, 평소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지난해를 혈당수치가 높다 해서 예사롭지 않게 놀랐었다. 기어이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공복식 혈당치가 높아 검사를 다시 해보란다.

건강검진 전날이면 왜 사람 만날 일은 그리 많은지, 이 핑계 저 핑계 끝에 빠져 나오긴 했지만 늦은 밤까지 밀려오는 식탐을 참기는 더 어려웠다. 식전부터 병원은 무슨 사

40세 이후 건강은 살아온 날들의 성적표

람들이 그리 많는지 비교적 한가한 편이라는데 이십여 명이나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다. 대개 내 또래의 셀러리맨이거나 중년 여성들이다.

더러 가족과 함께 앉은 이들은 두런두런 얘기라도 건네지만, 무료하고 표정없는 얼굴로 앉았다가 우유곽만한 포도당 한 병을 마시고는 30분마다 채혈을 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3개월 전과 같은 당도 진단계. 공복혈당이 높으니 운동을 더 하고 식사량과 방법 등을 조절해야 하며, 지금 상태가 어떤 단계인지 스스로 알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3개월 동안 약을 먹고는 재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날은 운동하는 요령에 대해, 그 다음 날은 가려야 할 음식과 식사량에 대해 상담과 교육을 받고나니 정말 환자가 다 된 기분이었다. 하긴 몇 년 전부터가 눈은 복도에서 사람을 만나도 쉬 알아보지 못하고, 환절기

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재채기를 달고 사는데다, 발뚧은 또 어디서 빠졌는지 걸을 때마다 시린 것인지 아픈건지 헷갈린지 오랜데, 이런저런 검사를 다 받으려면 종합병원을 세내야 할 지경이니 걸어야 하는 환자가 아니고 무엇인가.

아이들에게는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조신하기를 당부해 놓고 정작 스스로는 몸을 함부로 부러왔으니 벌을 받아도 할 말 없게 된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기대 수명은 81세이지만 아프지 않고 사는 나이인 건강수명은 73세로, 노후에는 8년 이상 병마에 시달린다는 평균수명이 길어진다는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다.

40세 이후엔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한

다지만 오늘의 내 건강은 지난날 내가 살아온 일종의 성적표인 셈이니 누구 탓하겠는가?

작가 최인호선생은 병중에 쓴 산중일기에서 당도를 겪는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나는 당뇨병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열등생에게 매일매일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처럼 내 게으른 성격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평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지나치지 말고 절제하라고 숙제를 내주시 것이다.”

인젠가 내게 찾아온 병(病)을 손님으로 여겨 잘 지내다 보면 일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지만 선물로까지 여겨야한다면 그의 필력과 신앙 어디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는 어느 세월이 지런 공력을 반이대로 가져볼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숙제하듯 몸을 닦고 수련하기에 정진할 일이다.

〈05년 수상자·농협중앙회 차장〉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강소원

필자는 지난 1983년 약성 지방 육종으로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아픔을 겪었다. 재발의 고통까지 겪으면서 지난 재벌 29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떤 고통이든 잘 참고 견뎌내는 인내력이 남달랐지만, 지금까지 건강을 지켜온 감회가 새롭다.

당시 나는 수술 후 5일 동안 계속해서 견디기 어려운 통증에 시달린 나머지 삶을 포기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깊은 시름에 빠진 채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에 비상계단 난간에서 아래로 굴러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었던 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약이다

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병을 이겨야 산다는 7전8기의 정신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절망감을 잊어내고 고통과 좌절의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굳은 의지가 생기면서, 죽음의 유혹을 뿌리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수술 부위에 이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더니 재발이란단.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렵겠다는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결코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로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를 찾았다. 재발 부위 수술을 끝내고 6주간의 방사선 치료와 1년간의 약물 치료를 하는 동안, 기어코 병을 이겨내야겠다는 여세를 같은 끈기와 강인한 의지력 하나로 구토

증, 식욕부진, 불면증, 탈모증 등 힘든 과정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후로 세상을 두 번 사는 와다리 인생을 백설불굴의 정신을 살고 있다. 질병이나 종교에서는 다 리절단 수술 20년이 지났지만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좌절에는 용기를 주고 절망에는 희망을 주고 방황에는 결심을 주고 회의에는 신념을 주어야 한다는 누군가의 말이 생각난다. 지금 우리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하여 공해와 기상이변, 그리고 각종 재난과 온갖 질병 등으로 인해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고 있다. 질병이나 종교에서는 기적이 있을 수 있지만, 죽음의 문턱에서는 기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본다면, 약

과 바꿀 수 없는 정신 무장은 우리 연약한 존재에게 선약 중의 선약일 것이다.

세계적인 암 치료 전문가인 가천대 길병원 김의신 교수는 암 치료가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는 근심 걱정이 적은 사람, 낙관적이고 즐겁게 사는 사람, 그리고 도시 사람보다는 시골 사람의 경우에 암 치료가 잘 된다고 하면서, 암환자에게는 무조건 밝게 살라고 권장한다고 한다.

부족하지만 필자도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삶의 의지를 심어주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쓴다. 고통과 좌절로 접할 뻔 나 자신의 끈질긴 투병생활에 비추어 보건대, 육체의 불구나 질병은 정신력으로 어느 정도는 치유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싶다. 70%의 정신력과 30%의 투약으로 질병을 이길 수 있다는 말처럼 말이다. 끝으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명언을 부연하고 싶다.

〈전 송정도서관장〉

이미 대표적인 콩 발효식품으로 우리나라의 된장과 청국장이고, 일본의 미소, 낫토, 인도네시아의 템페, 중국의 두시, 푸트, 태국의 토야나오 같은 게 알려져 있다.

그런데 같은 콩을 원료로 했어도 장류별로 발효균이 각각 다르고 식품의 기능성 성분에서도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템페는 19세기 네덜란드의 식민지 시절부터 세계에 알려져서 지금은 채식주의자들이 고기 대신 먹는 고단백식품이다.

우리나라 된장은 100% 콩으로 만든 전통 된장과 밀가루 등과 혼합해 만든 개량된장으로 구별되며, 전통 재래 된장은 함량과 향이 높아져서 지금은 채식주의자들이 좀 높은 단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청국장은 일본의 낫토에 비해 냄새가 강하여 서양인들이 거부감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콩 발효식품 세계화의 최우선과제는 세계인의 입맛에 맞도록 제조법을 과학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이다. 또한 맛과 기능성이 우수한 새로운 제품개발을 통해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먹을거리로 알리는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하다.

정부가 양장로서 우리 콩 된장류의 세계화를 위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농촌에서는 친환경 우수 콩을 생산하는 노력을 하며, 장류 식품 가공업체 역시 청결하고 건강기능성 높은 제품을 만들어 내도록 그 정반은 밝히고 본다. ▲류영규·광주시 남구 서동

시설

최대 현안 ‘어등산’ 거론조차 않은 부실 국감

국회 국정감사가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이를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이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선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같은 사안을 중복 제기하거나 잘못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의하는 등 고질적인 병폐들을 여과없이 쏟아냈다.

어등산관광단지 특혜 논란은 지역 내 최대 현안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의 전 과정을 꼼꼼히 따져 바로 잡기를 바랐던 게 사실이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시가 시민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테마파크와 골프장을 동시 개장토록 했으나 당초의 약속을 뒤엎어 지역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강운태 시장이 골프장만의 개장을 있을 수 없다고 뜻을 밝혔음에도 사업자의 자금난 등을 이유로 ‘돈 되는 사업인’ 골프장만 우선 개장토록 한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당연히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될 수밖에

에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이 합구로 일관한 건 어떤 의도 내지 지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정감사가 지역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은 소위 ‘적당주의’ 탓이 크다. 지역에 대한 국정감사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의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이 정도라면 폐지하는 게 옳다. 오히려 사업자에게 면죄부만 줄 뿐이다.

국감에서 의원들은 민생을 염두에 두고 얼한 비판을 하되 대안은 물론 결과까지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열세를 위해 테마파크와 골프장을 동시 개장토록 했으나 당초의 약속을 뒤엎어 지역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국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에서 ‘구태 의원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의원들도 이를 계기로 어등산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들러리를 서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허가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나로호 3차 발사,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I) 3차 발사가 이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교과부는 발사 예정일 26일 기술적 준비와 기상예보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 발사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지난 2009년, 2010년 두 차례 실패에 이어 나로호 이름을 단 발사체로는 마지막 시도다.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자기 땅에서, 자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우주클럽’에 세계 10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대한민국이 10대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의미다.

나로호는 현재 모든 점검을 끝내고 지난 21일 발사대 이송 준비까지 마친 상태다. 나로호에 장착된 나로과학위성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4일 발사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옮겨지고 25일에는 최종 발사 리허설을 거친다. 그러나 국민들의 염원대로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는 보장은 없다. 두차례의 실패에서 보듯 작은 결함 하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카운트 다운까지 발사체와 기상여건 등에 대한 치밀한 점검과 신중한 발사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로호 성공의 경제적 가치는 2조 3000억 원의 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발사체 제작 및 운용 기술력은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방, 우주와 학산업 분야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다. 정부가 이번 나로호 발사 성공 여부를 떠나 2021년까지 1조5천억원의 원을 투입, 한국형 발사체(KSLV-II)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다.

나로호 발사는 정부 계획과는 별도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민에게 우주 개발의 꿈과 희망을 안기고,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오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 국민의 환성을 이끌어내길 다시 한번 기원한다.

無等鼓

이집트와 시리아, 예멘, 이라크, 메카 등지를 아우르는 거대 이슬람 제국을 만들어낸 ‘이슬람의 전설적 영웅’ 살라딘(Saladin·1138~1193)은 평생 세 번의 암살 위기를 겪었다.

1175년 겨울, 알레포를 공략하던 중 유명한 시리아 암살단 ‘아사신’에서 파견한 자객들의 공격을 받은 것이 첫 번째다. 막사에 함께 있던 시종장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목숨을

구하도록 허락”은 명령까지 내렸으며, 아사신과 협력할 지언정 다시는 대항하지 않았다. 천하의 살라딘도 결국 암살의 단검에 맞아 머리와 목에 부상을 당했지만 쇠미늘 투구와 갑옷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다.

세 번째 암살 시도는 다소 극적이다. 살라딘이 보복을 위해 아사신의 본거지인 미스아프 성을 공격하자 ‘산 노인’으로 불리는 아사신의 대장 ‘라시드’와 단 한 사람이 직접 암살에 나선다.

시안은 한밤 중 살라딘의 막사에 잠입, 잠자는 살라딘의 침상 옆에 독 물은 단검을 꽂아 놓고 유유히 사라진다. 단

검과 함께 남겨놓은 편지에는 ‘무슨 짓을 한다 해도 그대(살라딘)는 가진 것을 잃게 될 것이고, 승리는 우리에게 머물 것이다. 그대는 우리의 수중에 있으며, 우리가 그대 내버려 두는 것임을 명심하라’는 글이 써여 있었다.

잠에서 깨어난 살라딘은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나머지 무기를 팽개쳐 두고 서둘러 본거지로 돌아갔다. 살라딘은

“시안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도록 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으며, 아사신과 협력할 지언정 다시는 대항하지 않았다. 천하의 살라딘도 결국 암살의 단검에 맞아 머리와 목에 부상을 당했지만 쇠미늘 투구와 갑옷 덕분에 위기를 모면한다.

세 번째 암살 시도는 다소 극적이다. 살라딘이 보복을 위해 아사신의 본거지인 미스아프 성을 공격하자 ‘산 노인’으로 불리는 아사신의 대장 ‘라시드’와 단 한 사람이 직접 암살에 나선다.

시안은 한밤 중 살라딘의 막사에 잠입, 잠자는 살라딘의 침상 옆에 독 물은 단검을 꽂아 놓고 유유히 사라진다. 단

암살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